

# 한국투자캐피탈(주) Korea Investment Capital Co., Ltd.

본평가  
평가일: 2018.4.16

<b>평가개요</b>	신용등급 <b>A2</b>	평가대상 기업어음	유효기간 2019.6.30
-------------	-------------------	--------------	-------------------

<b>Analyst</b>	이원섭 전문연구원	02)6966-2458	wslee@scri.co.kr
	박현희 실장	02)6966-2466	hyunhee.park@scri.co.kr

<b>Latest Rating</b>	구분 -	평가일 -	등급 -
----------------------	---------	----------	---------

## 재무요약

(단위: 억원)

(별도기준)	2014.12	2015.12	2016.12	2017.12
총자산	202	7,480	15,390	19,820
관리금융자산(충당금제외)	180	7,244	14,280	18,728
차입부채	-	6,584	13,375	16,977
자기자본	195	847	1,895	2,652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	-2	84	344	533
당기순이익	-2	53	249	408
대손준비금조정순이익	-2	9	197	360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	-1.2	2.2	3.0	3.0
총자산순이익률(ROA)(%)	-1.2	1.4	1.5	2.1
실질연체율(%)	-	0.4	0.2	0.1
레버리지배수(배)	1.0	8.8	8.1	7.5
조정자기자본비율(%)	101.2	11.8	12.8	14.3
원화유동성비율(%)	615.5	2,049.3	248.0	105.9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주1: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영업이익+대손상각비

주2: 실질연체율=대손부담률+1개월이상연체율

## 평가의견

서울신용평가(주)는 한국투자캐피탈(주)의 기업어음 본평가 신용등급을 A2로 평가하며, 주요 평가요인은 다음과 같다.

- 非 Captive 후발주자로 시장지위 확보 위한 급격한 성장세
- 모회사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 그룹차원의 리스크 관리능력 고려시 양호한 자산건전성 유지 전망
- 차입금구조의 장기화로 유동성 대응능력 개선추세
- 계열로부터의 높은 지원가능성

## ■ 신용등급 논리

한국투자캐피탈(주) (이하 ‘동사’)는 한국금융투자그룹 계열의 여신전문금융회사로, 2014.11월 설립 이후 기업운용자금대출, 부동산담보대출, PF대출 등의 기업대출과 주로 중도금대출로 구성된 가계대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非 Captive 후발주자로 시장지위 확보를 위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영업초기에는 그룹과의 연계영업을 통해 기업대출부문에서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非 Captive 업체 후발주자로서 사업안정성은 Captive 업체 대비 열위하나,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서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등과의 높은 사업적 연계성과 가계대출부문에서의 성장노력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지위와 영업안정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회사 지급보증을 통한 낮은 조달비용효과 및 영업초기 낮은 대손비용으로 업계 평균 이상의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다. 관리금융자산 확대과정에서 영업수익 증가와 모회사 지급보증을 통한 낮은 조달비용효과에 힘입어 업계 평균 이상의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다. 또한 대출실행 후 실질 건전성을 측정할 경과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음으로 인해 최근 3년 평균 대손부담률이 0.2% 수준에서 낮게 유지된 점도 양호한 수익성에 기여하였다. 다만, 2017년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과 같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확대로 주력사업 분야인 부동산담보대출, PF대출 등 기업대출부문의 영업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7.11월 한국은행의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및 대출실행 후 일정 경과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대손비용률 정상화에 따라 대손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익성의 하방요인이 존재한다.

그룹차원의 리스크 관리능력 고려시 양호한 자산건전성 유지할 전망이다. 2017년말 기준 연체 및 고정이하로 분류된 부실채권이 전무한 상황으로 지표상의 자산건전성이 우수한 수준이다. 담보중심의 대출구성과 그룹차원의 통합리스크관리 체계 및 역량을 고려시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건설,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일부 고위험군 업종에 대한 높은 대출자산비중 (50%)과 거액여신 (건당 평균대출금, 대기업 260억원,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8억원) 위주의 기업대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영업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화될 경우에 따른 연체율 변동 추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모회사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확충이 되었다. 업계우위의 수익성에 따른 내부유보자본에도 불구하고 빠른 관리금융자산 성장속도로 인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원충력을 제고하였다. 향후 계열로부터의 추가적인 증자가능성은 동사의 자본적정성 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입금구조의 장기화로 유동성 대응능력 개선되고 있다. 2017.12월말 기준 3개월 이내 만기도래 자산, 부채 구조 (ALM matching ratio: 105.9%)와 그룹의 대외신인도에 기반한 우수한 자금조달 경쟁력, 금융기관 차입약정 (Credit line)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유동성 대응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유사시 계열지원가능성 높은 수준이다. 2016년 이후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로 지주사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이 2015년말 기준 117.6%에서 2017년말 129.0%로 상승한 측면 있으나, 그룹의 우수한 재무역량과 모회사로부터 외형성장 및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사시 계열로부터의 지원가능성이 인정된다.

### ■ 모니터링 요소

서울신용평가(주)는 동사의 시장지위 및 경쟁역량의 변화를 통한 수익성 추이와 대출채권 증가에 따른 리스크관리 및 재무적안정성 수준의 변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요 모니터링 요소는 조정총자산이익률 (ROA) 등의 수익성 지표, 현재 수준의 자산건전성 지속 여부, 유동성 및 재무정책 등의 재무안정성 지표이다.

■ 주요 평가요소별 검토

2014년 설립된 한국투자금융그룹 계열의 여신전문금융회사

2014.11월 설립된 한국투자금융그룹의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2015.12월 계열사간 지분매각을 통해 최대주주가 한국투자증권(주)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주)로 변경 (지분율 100%) 되었으며, 평가일 현재 기업운용자금대출, 부동산담보대출, PF대출 등의 기업대출과 주로 중도금대출로 구성된 가계대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非 Captive 후발주자로 시장지위 확보 위한 급격한 성장세

영업초기에는 한국투자증권과의 연계영업을 통한 기업대출부문에서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非 Captive 업체 후발주자로서 사업안정성은 Captive 업체 대비 열위하나,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전자회사로서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등과의 높은 사업적 연계성과 가계대출부문에서의 성장노력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지위와 영업안정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룹의 우수한 신인도에 기반한 높은 자금조달경쟁력 및 그룹의 자본지원으로 적극적인 영업 확대를 통한 시장점유율 제고 노력으로 2015년말 이후 연평균성장률 (Compound annual growth rate) 62.8%의 급격한 자산성장이 이뤄졌음. 2017년말 기준 관리금융자산은 1.9조원 수준으로 2조원 자산대의 DGB캐피탈 및 효성캐피탈에 근접하고 있음.
- 2018-2019년에는 동사의 보수적인 목표 신규성장규모 수준을 감안할 때, 사업초기 단계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던 규모 및 이익 변동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017년 이후 중도금대출 등 가계대출부문에도 신규 진출하면서 사업다변화 과정에 있으나, 중단기적으로는 기업대출에 대한 높은 집중도 (86.3%) 수준을 감안할 때 사업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표1] 관리금융자산 내역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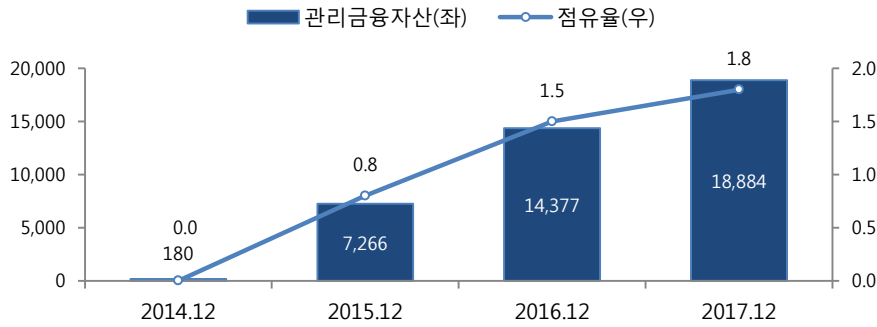
구분	2014.12		2015.12		2016.12		2017.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대출채권	180	100.0%	7,251	99.8%	14,356	99.1%	18,844	99.8%
기업대출	180	100.0%	7,251	99.8%	14,356	99.1%	16,297	86.3%
가계대출	-	-	-	-	-	-	2,546	13.5%
신기술금융자산	-	-	15	0.2%	21	0.1%	41	0.2%
관리금융자산계	180	100.0%	7,266	100.0%	14,377	100.0%	18,884	100.0%

자료: 업무보고서

주: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

[그림1] 관리금융자산(총당금제외) 규모 및 점유율 추이

(단위: 억원, %)



자료: 금융감독원, 당사 재구성

주: 점유율은 할부금융 및 리스업 인가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 47개사 기준 (2017년말)

**모회사 지급보증을 통한 낮은 조달비용효과 및 영업초기 낮은 대손비용으로 업계 평균 이상의 수익성 기록**

관리금융자산 확대과정에서 영업수익 증가와 모회사 지급보증을 통한 낮은 조달비용효과에 힘입어 업계 평균 이상의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다. 또한 대출실행 후 실질 건전성을 측정할 경과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음으로 인해 최근 3년 평균 대손부담률이 0.2% 수준에서 낮게 유지된 점도 양호한 수익성에 기여하였다.

- 2017년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 및 총자산순이익률은 각각 3.0%, 2.1%로 업계 평균 (총자산순이익률 2017년 기준 업계 평균 1.5%) 이상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음.
- 영업환경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확대에 의해 주력사업 분야인 부동산담보대출, PF대출 등 기업대출부문의 영업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7.11월 한국은행의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압력이 있고, 대출 실행 후 일정 경과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대손비용률 정상화에 따라 대손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익성의 하방요인이 존재함.
- 다만, 가계대출 부문으로의 수익구조의 다변화 및 안정화 과정과 그룹의 대외신인도에 기반해 자금조달비용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익성 하방압력을 일정부분 상쇄할 것으로 판단됨.

[표2] 수익성 추이

(단위: %)

구분	2014.12	2015.12	2016.12	2017.12
운용수익률	0.3	5.0	5.9	5.4
조달비용률	-	2.1	2.5	2.1
대손부담률	-	0.4	0.2	0.1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	-1.2	2.2	3.0	3.0
영업이익률	-1.2	1.8	2.9	3.0
총자산순이익률	-1.2	1.4	1.5	2.1

자료: 업무보고서, 당사 재구성

주: 운용수익률, 조달비용률, 대손부담률은 대출채권평잔 대비 기준임

**그룹차원의 리스크 관리능력 고려시 양호한 자산건전성 유지 전망**

대출실행 후 실질 건전성을 측정할 경과기간이 아직 충분히 지나지 않아 실질 건전성을 산정하기에는 이르나, 2017년말 기준 연체 및 고정이하로 분류된 부실채권이 전무한 상황으로 지표상의 자산건전성이 우수한 수준이다. 담보중심의 대출구성과 그룹차원의 통합리스크관리 체계 및 역량을 고려시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유지할 전망이다.

- 2017년말 기준 1개월이상연체율과 대손부담률을 감안한 실질연체율은 0.1%,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0%로 우수한 수준임.
- 적극적인 영업확대를 통한 시장점유율 제고 노력으로 성장이 용이한 기업대출 영역에서 자산성장률이 급격했으나, 연계영업을 통한 신용도가 비교적 우량한 대출채권이며, 담보중심의 대출구성 (전체 대출채권 대비 순수신용대출 비중 17.5%)을 감안할 때 자산포트폴리오의 건전성방어력이 우수한 수준임.
- 다만, 건설,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일부 고위험군 업종에 대한 높은 대출자산비중 (50%)과 거액여신 (건당 평균대출금, 대기업 260억원,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8억원) 위주의 기업대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영업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화될 경우에 따른 연체율 변동 추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표3] 자산건전성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4.12	2015.12	2016.12	2017.12
건전성분류총채권	180	7,251	14,356	18,844
고정이하여신	-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	-	-
대손충당금적립비율(요적립액 대비)(%)	-	26.3	100.0	101.1
대손충당금적립비율(고정이하여신 대비)(%)	-	-	-	-
실질연체율(%)	-	0.4	0.2	0.1
1개월이상연체율(%)	-	-	-	-
대손부담률(%)	-	0.4	0.2	0.1

자료: 업무보고서

주: 실질연체율=1개월이상연체율+대손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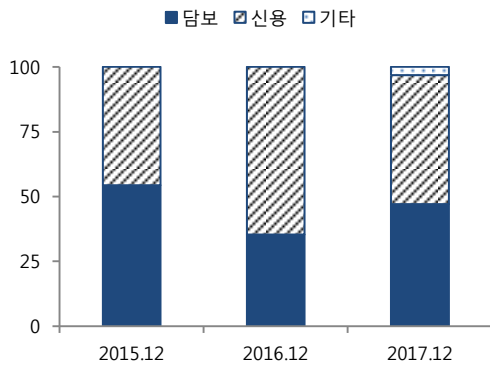
[표4] 대출채권 내역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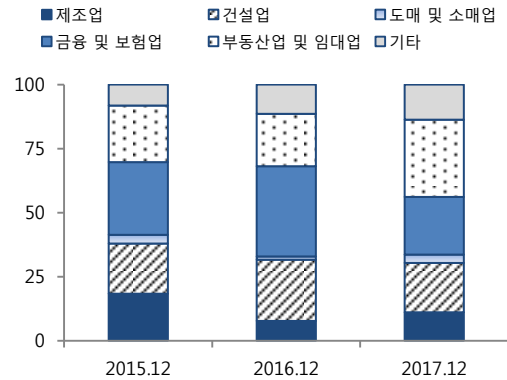
구분	2015.12		2016.12		2017.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담보	3,943	54.4%	5,059	35.2%	8,852	47.0%
신용	3,308	45.6%	9,297	64.8%	9,391	49.8%
부분신용	2,918	40.2%	5,449	38.0%	5,287	28.1%
인적신용	-	-	1,895	13.2%	800	4.2%
순수신용	390	5.4%	1,953	13.6%	3,305	17.5%
기타	-	-	-	-	600	3.2%
합계	7,251	100.0%	14,356	100.0%	18,844	100.0%

자료: 업무보고서

[그림2] 대출상품별 구성내역 (단위: %)



[그림3] 대출업종별 구성내역 (단위: %)



자료: 업무보고서

**모회사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업계우위의 수익성에 따른 내부유보자본에도 불구하고 빠른 관리금융자산 성장속도로 인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였다. 향후 계열로부터의 추가적인 증자가능성은 동사의 자본적정성 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급격한 관리금융자산성장률로 인해 레버리지배수가 업무규제한도 (10배) 수준에 근접하였음. 2017.12월말 레버리지배수 7.5배로 지표상 자본적정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유상증자 (2015년 600억원, 2016년 800억원, 2017년 400억원)를 통해 자본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17.12월말 기준 14.3%로 업계 평균 (2016년 기준 업계 평균 14.0%, 동사 12.8%)을 다소 하회하는 수준이나, 동사의 2018-2019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수적인 성장전략과 모회사의 높은 지원의지를 고려할 때 양호한 수준의 자본적정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표5] 자본적정성 추이 (단위: 배, %)

구분	2014.12	2015.12	2016.12	2017.12
레버리지배수	1.0	8.8	8.1	7.5
조정레버리지배수	1.0	9.3	8.5	7.8
자기자본비율	96.5	11.3	12.3	13.4
조정자기자본비율	101.2	11.8	12.8	14.3

자료: 업무보고서

주: 조정레버리지배수=(총자산-대손준비금)/(자기자본-대손준비금)

### 차입금구조의 장기화로 유동성 대응능력 개선추세

동사의 자산, 부채 만기구조 현황 및 그룹의 높은 신용도에 기반한 우수한 자금조달경쟁력, 금융권 차입약정 (Credit line)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유동성 대응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그룹의 높은 신용도에 기반하여 공개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장기화 (2017.12월말 총차입금 대비 회사채 비중 81.2%)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사시 필요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약정 (기업은행 200억원)을 보유하고 있음.
- 2017.12월말 기준 총차입부채 (1.7조원) 중 단기성차입금 (7,700억원) 비중이 45.4%로 단기성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은 수준임. 다만, 양호한 원리금회수실적 (최근 12개월 월평균 회수액 989억원, 대출잔액 대비 월평균 원리금회수율 5.3%)과 기존 차입부채의 차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유동성 위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17.12월말 기준 3개월 이내 만기도래 자산, 부채 구조 (ALM matching ratio: 105.9%) 현황과 보유 현금 및 예치금 937억원 수준을 감안할 때 유동성 관리수준이 양호함.

**[표6] 잔존만기 1년 이내 단기성차입금 만기일정**

(단위: 억원)

구분	2018.3	2018.6	2018.9	2018.12
국내차입금	900	2,700	5,200	7,700
차입금	-	700	1,400	3,200
사채	900	2,000	3,800	4,500
차입금 합계	900	2,700	5,200	7,700

자료: 업무보고서

주: 차입금 합계는 해당 시점까지 만기도래하는 차입금의 합계금액임 (2017년말 기준)

### 유사시 계열지원가능성 높은 수준

그룹의 우수한 재무역량과 모회사로부터 외형성장 및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사시 계열로부터의 지원가능성이 인정된다.

- 2016년 이후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로 지주사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15년말 기준 117.6%에서 2017년말 129.0% 로 상승한 측면 있으나, 그룹 계열사의 우수한 재무역량과 양호한 실적에 기반한 배당금수익 등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계열지원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



■ Fundamental Review

단기신용도 A2	Fundamental a
-------------	------------------

Mapping Grid

사업위험		aaa	aa	a	bbb	bb	b
관리금융자산 규모(조원)					√		
사업규모 변동성					√		
사업기반	영업환경				√		
	시장지위				√		
	경쟁역량			√			
재무위험		aaa	aa	a	bbb	bb	b
수익성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					√	
	조정총자산순이익률(ROA)(%)				√		
자산 건전성	실질연체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충당금적립률(%)	√					
재무정책 및 자본적정성	재무정책		√				
	조정레버리지배수(배)			√			
	조정자기자본비율(%)		√				
유동성	단기성차입금비중(%)					√	
	원화유동비율(%)				√		
모형신용도		aaa	aa	a	bbb	bb	b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 관리 수준	양호	보통	미흡
-------------	----	----	----

**Mapping Grid: 여진전문금융(할부·리스)**

사업위험		가중치	aaa	aa	a	bbb	bb	b
관리금융자산 규모(조원)		10%	≥10	≥5	≥3	≥1.5	≥0.5	<0.5
사업규모 변동성		15%	매우 낮음	상당히 낮음	낮음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사업 기반	영업환경	8%	매우 우호적	우호적	보통	다소 비우호적	비우호적	매우 비우호적
	시장지위	7%	매우 높음	상당히 높음	높음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경쟁역량	10%	매우 높음	상당히 높음	높음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재무위험		가중치	aaa	aa	a	bbb	bb	b
수익성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	5%	≥6	≥5	≥4	≥3	≥2	<2
	조정총자산순이익률(ROA)(%)	5%	≥4	≥3	≥2	≥1	≥0	<0
자산 건전성	실질연체율(%)	4%	≤1	≤3	≤5	≤7	≤9	>9
	고정이하여신비율(%)	3%	≤1	≤2	≤3	≤4	≤5	>5
재무정책 및 자본적정성	총당금적립률(%)	3%	≥160	≥120	≥100	≥80	≥60	<60
	재무정책	8%	매우 보수적	상당히 보수적	보수적	비교적 보수적	공격적	매우 공격적
	조정레버리지배수(배)	6%	≤5.5	≤7	≤8.5	≤10	≤11.5	>11.5
유동성	조정자기자본비율(%)	6%	≥18	≥13	≥10	≥7	≥4	<4
	단기성차입금비중(%)	7%	≤10	≤20	≤30	≤40	≤50	>50
	원화유동비율(%)	3%	≥160	≥140	≥120	≥100	≥80	<80

본 평가에 적용된 주요 평가방법론은 서울신용평가(주)가 공시한 여신전문금융 평가방법론(2016)입니다. 공시된 신용평가방법론은 서울신용평가(주) 홈페이지 [www.scri.co.kr](http://www.scri.co.kr)의 Research/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건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감사보고서, 업무보고서, 경영공시자료 등입니다.

[단기채무 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	정 의
A1	적기 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이어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음.
A2	적기 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	적기 상환능력은 양호하나, 장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이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	적기 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그 안정성에 다소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	적기 상환능력이 의문시되어 투기적 요소가 강함.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주1: 상기 등급 중 A2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우월 정도에 따라 +, - 기호를 부기할 수 있음.

주2: 상기 등급 중 A1등급에서 A3등급까지는 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으로, B, C 등급은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 상환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됨.

- 본 신용평가의 평가개시일은 2018년 3월 22일이며, 계약체결일은 2018년 3월 6일이며, 평가완료일은 2018년 4월 16일입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 건수 및 수수료총액은 각각 0건, 0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요청인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되며, 동 기업집단의 직전연도 평가수수료 비중은 당사의 직전연도 평가수수료의 2.0%에 해당합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비평가용역계약 체결 건수 및 수수료 총액은 0건, 0백만원이며,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비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 기업집단의 직전연도 비평가용역 수수료 비중은 당사의 직전연도 전체 비평가용역 수수료 총액의 0.0%에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현재시점에서의 서울신용평가(주)의 의견입니다. 신용등급은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시장가치 변동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의 여타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등급은 법령, 조세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서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위험에 대하여 예측한 의견으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견해는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평가의견 및 간행물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의미하지 않으며, 특정 증권의 투자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등급이나 평가의견, 간행물 등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정보이용자들은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신용평가서, 평가의견, 간행물 등 보고서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각종 공시자료 등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분석자, 분석도구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결정시에 활용되었거나 본 보고서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신용등급 및 본 보고서에 반영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 정보 및 기재내용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합성을 당사가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며,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서울신용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무단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 재판에 또는 유포될 수 없습니다.